

국어 영역(A형)

제 1 교시

1

[1~2] 다음은 교내 신문 편집부 회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편집부장: 지난 번 회의에 이어 오늘은 학교 신문을 종이 신문 형태로 만들지, 인터넷 신문 형태로 만들지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여학생1: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설문 조사에 따르면 종이 신문과 같은 인쇄 매체보다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도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 신문으로 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학생1: 하지만 그것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가 아닌가요? 학교 신문을 만들 때 참고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 신문으로 발행하게 되면 인터넷이 되는 환경에서만 기사 내용을 볼 수 있다는 제약이 따르고, 기사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없어 화면을 여러 번 움직여야 하는 불편함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이 신문으로 발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남학생2: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넷 신문으로 발행하게 되면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신문을 읽고 싶던 학생도 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종이 신문은 학생들에게 직접 배부해 주기 때문에 신문에 관심이 없던 학생들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종이 신문을 학부모임, 인근 학교 등에 배부하면 홍보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여학생2: 학교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신문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신문으로 발행하면 기사에 대한 댓글을 통해 학생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기사를 언제든지 검색하여 읽을 수 있을 거구요.

남학생3: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인터넷 신문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요새 대부분의 친구들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에 그다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신문으로 발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동안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발행한 학교 신문을 읽지도 않고 함부로 버리거나 아무 곳에나 방치하는 학생들 때문에 속상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면 이와 같은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편집부장: 그렇다면 학교 신문을 인터넷 신문으로 발행하여 홈페이지에 올리고 종이 신문을 함께 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종이 신문의 수효를 사전에 조사해서 낭비를 줄이는 것은 어떨까요?

1. '남학생1'과 '남학생3'의 공통된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른 참여자의 의견들을 절충하여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다.
- ② 다른 참여자의 견해를 반박하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다른 참여자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며 보충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 ④ 다른 참여자의 주장을 요약하며 서로 간의 견해 차이를 좁히고 있다.
- ⑤ 다른 참여자의 주장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 자기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2. 발화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세운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발화자	주장	근거
여학생1	인터넷 신문 발행	정보를 얻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매체를 선택해야 함. ①
남학생1	종이 신문 발행	기사 내용이 풍부하여 학습에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음. ②
남학생2	종이 신문 발행	직접 배부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접할 수 있게 하고 홍보 효과도 얻게 됨. ... ③
여학생2	인터넷 신문 발행	학생들의 반응 확인 및 지난 기사 검색이 용이함. ④
남학생3	인터넷 신문 발행	인터넷 매체 사용에 제약이 적고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음. ⑤

3. 다음은 공감적 듣기에 대한 설명이다. [A]의 사례를 <보기>에서 찾았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공감적 듣기에는 '소극적인 들어주기'와 '적극적인 들어주기'가 있다. 소극적인 들어주기란 상대방에게 관심을 드러내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들어주는 것이다. 이에 비해 [A] 적극적인 들어주기란 상대방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도록 상대방의 말을 정리하며 들어주는 것이다.

< 보 기 >

현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선생님:** 현아구나. 잘 지냈니? ㉠ 콩쿠르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들었어. 잘 되어 가니?**현 아:** (시무룩한 표정으로) 네.**선생님:** 어? ㉡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지?**현 아:** 사실은..... 요즘 피아노 앞에 앉기가 너무 싫어요.**선생님:** (걱정스런 표정으로) ㉢ 저런..... 늘 열심히 연습하더니, 갑자기 왜?**현 아:** (한숨을 쉬며) 같은 곡만 계속 연습했더니 제 느낌이 없어서 피아노 치는 것이 재미없어요. 마치 제가 피아노 치는 기계가 된 것 같거든요.**선생님:** ㉣ 네 말은, 연습만 하다 보니 너만의 느낌을 살리지 못해서 재미가 없어졌다는 거지? 많이 답답했겠네.**현 아:** (속상한 표정으로) 네, 맞아요.....**선생님:** 그런데 너는 너의 느낌을 담아 연주한다는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니?**현 아:** 곡에 대한 저만의 감정을 담아 연주하는 거요.**선생님:** 내가 피아노 연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훌륭한 연주자들은 모두 곡에 대한 자기만의 감정을 담아 연주하지 않나?**현 아:** 그렇죠. 저도 언젠가 TV에서 제가 좋아하는 피아니스트가 한 곡을 엄청나게 연습하여 자기만의 음악적 색깔을 완성했다는 인터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선생님:** ㉤ 응, 그래?**현 아:** (미소를 지으며) 그래도 선생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마음도 풀리고, 제가 하는 연습들이 저만의 색깔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감사해요.

① ㉠

② ㉡

③ ㉢

④ ㉣

⑤ ㉤

[4~5]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보물찾기가 무엇인지 아시죠? 갑자기 무슨 보물찾기 이야기냐고 의아해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네요. 저는 방송을 제작하고 이를 시청하는 과정이 보물찾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은 방송 모니터링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이슈, 인코딩, 코드, 디코딩 등의 생소한 용어가 보이실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드라마로 범위를 좁혀 설명하자면, 이슈란 드라마에서 사용되는 소재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제작자에 의해 이슈가 다양한 형태로 구현된 것을 코드라고 하고, 그 과정을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또한 디코딩은 시청자가 방송 제작자에 의해 코드화된 내용을 메시지로 풀이하는 과정입니다. 즉 방송 제작자가 보물을 숨기는 사람이라면, 시청자는 보물을 찾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해가 잘 되시나요? 고개를 가우뚱거리는 사람들도 있네요. 일단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한 후)

동영상을 보면서 주인공의 갑작스러운 불행에만 집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인공이 불행해지기 전에 천둥번개가 치는 장면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의 갑작스러운 불행이 이슈라고 한다면, 천둥번개가 치는 장면은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고 주인공이 불행해질 것을 예측하는 과정이 바로 디코딩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드라마를 포함한 방송에는 다양한 코드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방송 제작자는 의미 없는 인코딩을 하지 않습니다. 방송 제작자의 인코딩에 무엇인가 의도가 있다면, 디코딩을 통해 메시지로 이끌어내는 것은 바로 시청자의 몫입니다. 능동적인 시청자는 이렇게 숨겨진 코드들을 찾아내면서 보물찾기의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발표자가 사용한 말하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비언어적 표현을 이용하여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 ③ 발표 내용의 출처를 제시하여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④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사용하여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5. 위 발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발표자는 시청자가 메시지를 이끌어내는 주체라고 생각하고 있군.
- ② 발표자는 방송 제작자가 의미 없는 인코딩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군.
- ③ 발표자는 시청자가 방송 제작자의 인코딩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군.
- ④ 발표자는 디코딩을 통해 방송을 더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군.
- ⑤ 발표자는 방송 제작자의 인코딩을 보물찾기에서 보물을 숨기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군.

[6~8] 다음은 ‘온라인 게임에서의 청소년 욕설 문제’에 대해 학생이 쓴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청소년기에 사용하는 언어는 개인의 정서와 인격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게임에서의 청소년 욕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청소년들의 갈등과 폭력, 소외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욕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의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더 많은 욕설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욕설을 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에서 욕설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온라인 게임의 특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온라인 게임을 통해 과도한 경쟁이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라인 게임은 직접 상대방과 대면하지 않는다는 점과 익명성 때문에 일상에서보다 더 많은 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 측면에서는 평상시에도 욕을 많이 하던 학생이 온라인 게임에서도 습관적으로 욕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의 77.5%가 온라인 게임에서의 욕설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83.0%는 욕설을 하지 않고도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스스로가 조금만 더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한다면 욕설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게임의 매체 특성을 고려한 언어 교육이나 캠페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발생하는 청소년의 욕설 문제는 단순히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언어 사용의 주체인 청소년은 물론, 학교와 게임 제공 업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6. <보기>는 글쓴이가 초고를 쓰기 전에 작성한 글쓰기 계획이다.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주 제	○ 온라인 게임에서의 청소년 욕설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내 용	[서론] ○ 청소년기 언어 사용의 중요성 ○ 온라인 게임에서 청소년 욕설 문제 해결의 필요성 … ①
구 성	[본론] ○ 온라인 게임에서 나타나는 청소년 욕설의 실태 …… ② ○ 온라인 게임에서의 욕설 방지 대책의 변화 양상 …… ③ ○ 온라인 게임에서 청소년들이 욕설을 하는 이유 ○ 온라인 게임에서의 욕설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 ④ ○ 온라인 게임에서의 청소년 욕설 문제 개선 방안 …… ⑤
방 향	[결론] ○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촉구

7. 초고를 작성한 후 <보기>와 같은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였다. <보기>를 활용하여 초고를 수정·보완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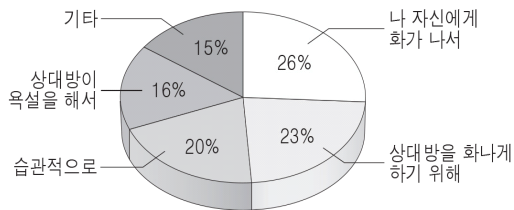
< 보 기 >

(가) 설문 조사 (대상: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

1. 온라인 게임 상에서의 욕설 경험

욕설을 한 경험		욕설을 당한 경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81.7%	18.3%	89.6%	10.4%

2. 온라인 게임에서 욕설을 하는 이유



(나) 신문 기사

청소년의 71.8%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고 있으며, 온라인 게임 시간은 5년 전에 비해 평일에는 27분, 주말에는 53분씩 각각 늘어나는 등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언제부터 온라인 게임에서 욕설을 하기 시작했느냐'라는 질문에 청소년의 80.3%는 초등학교 시기, 12.6%는 중학생 시기라고 답변했다. 이는 온라인 게임에서의 욕설이 이른 시기부터 시작된다는 사회적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 전문가 의견

온라인 게임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욕설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업체에서는 욕설 방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에서 청소년 욕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른 시기에 가정과 학교에서 올바른 언어 사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① (가)-1을 활용하여 둘째 단락에서 언급한,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욕설을 경험한다는 사실의 구체적 근거로 제시한다.
- ② (가)-2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에서 욕설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게임을 하면서 발생하는 분노일 수 있음을 셋째 단락에 추가한다.
- ③ (나)를 활용하여 첫째 단락에서 언급한,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한다.
- ④ (다)를 활용하여, 게임 제공 업체가 온라인 게임에 대한 청소년들의 장시간 접속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을 넷째 단락에 추가한다.
- ⑤ (나)와 (다)를 활용하여, 각 가정에서도 올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조기 교육이 필요함을 넷째 단락에 추가한다.

8. 온라인 게임에서의 청소년 욕설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 문구를 <조건>에 맞게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조 건 >

- 초고에서 제시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포함해야 함.
- 비유적 표현과 대구를 활용해야 함.

- ① 온라인 게임을 매번처럼 뒤덮은 욕설, 욕설 예방 교육에 참여하여 깨끗한 숨결을 불어 넣읍시다.
- ② 온라인 게임을 하지 않으면 청소년은 행복해집니다. 온라인 게임 시간을 줄여 웃음꽃을 크게 피웁시다.
- ③ 상대를 향해 내댈진 분노의 욕설, 자신을 향해 돌아온 격분의 화살. 온라인 게임에서 우리 스스로 욕설을 자제합시다.
- ④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는 욕설,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바른 말. 올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을 선택합시다.
- ⑤ 나부터 실천하는 옳은 말 쓰기, 너까지 배려하는 바른 말 쓰기. 온라인 게임에서의 욕설 없애기 캠페인 활동에 모두 동참합시다.

[9 ~ 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가)를 읽고, '충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 주장하는 글을 써 보았다. (나)는 그 초고이다.

(가) 신문 기사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충간소음에 대한 규정과 방지 대책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 주체에 소음 피해를 신고하면 관리 주체는 소음을 유발한 세대에 소음 중단이나 차음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충간소음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기준이 마련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 등에서 진행되는 각종 분쟁 조정에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나) 학생의 글

얼마 전, 국토교통부가 충간소음 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만들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동안 충간소음에 대한 명확한 처벌 기준과 규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드디어 법령 개정을 통해 기준안이 ㉠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법적 규제만으로 충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법적 규제는 충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줄이고, 가해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 왜냐하면 법적 해결에만 의존할 경우,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줄어들어 오히려 이웃 간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 ㉢ 자연에서 나는 소리 같은 백색 소음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소음이다. 따라서 법적 규제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사회 구성원 상호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공동 주택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개인 주택과 달리 공동 주택은 천장과 바닥을 이웃과 ㉣ 함께 공유한다. 따라서 개인만의 공간이 아닌 공동의 공간이라는 인식을 갖고 서로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충간소음은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자신의 생활습관을 돌아보고 이를 ㉤ 개발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배려하려는 노력이 더해진다면 충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9. (가)를 읽은 학생이 (나)를 쓸 때 활용한 방법이 아닌 것은?

- ① 기사에서 언급한 개정안의 적용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 ②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글의 시작 부분에서 기사의 내용을 언급한다.
- ③ 기사를 읽고 가지게 된 문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해 의문의 형식을 사용한다.
- ④ 찬간소음을 해결하는 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동 주택의 특징을 제시한다.
- ⑤ 기사에서 언급한 개정안을 적용했을 때의 긍정적 효과와 우려되는 점을 함께 제시한다.

10. ㉠ ~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문장 성분 간 호응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마련된’으로 고쳐야겠어.
- ② ㉡은 문장 간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그러나’로 고쳐야겠어.
- ③ ㉢은 글의 흐름과 어긋나는 문장이므로 삭제해야겠어.
- ④ ㉣은 단어의 의미가 중복되었으므로 ‘함께’를 삭제해야겠어.
- ⑤ ㉤은 문맥상 부적절한 단어이므로 ‘계발’로 고쳐야겠어.

11. 다음은 ‘축약’에 대한 문법 수업의 일부이다. (가) ~ (다)의 사례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선생님의 설명

음운의 변동 중 ‘축약’은 자음 간의 축약과 모음 간의 축약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놓고’가 [노코]로 발음되는 **(가) 거센소리되기는** 자음이 축약된 사례이고, ‘보아’가 ‘봐’로 음절이 줄어드는 경우는 모음이 축약된 사례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모음의 축약을 용언으로 한정할 경우, **(나) 어간에서만 축약**, 어미에서만 축약, **(다) 어간과 어미의 축약**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으셨다’는 선어말 어미인 ‘-시-’와 ‘-었-’이 ‘-셨-’으로 축약되었으므로 어미에서만 축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보 기 >

고등학교 **㉠** 입학 후 중학교 친구들을 만났다. 우리들은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니 정말 **㉡** 좋다며 반갑게 인사를 **㉢** 나눴다. 눈에 **㉣** 뜨게 모습이 변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다들 마음만은 여전히 **㉤** 보였다. 우리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눈 뒤, 다음을 기억하며 헤어졌다.

	(가)	(나)	(다)
①	b	a, d	c, e
②	c	a, b	d, e
③	a, b	d	c, e
④	a, b	c, e	d
⑤	a, c	b, d	c

12. 다음은 학교 홈페이지의 ‘질의-응답 게시판’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과제를 수행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어 학습 Q&A

질문

학생

오늘 문법 시간에 부정문에 대해 배웠는데, ‘아니(안), 못’이 쓰이면 짧은 부정문이고, ‘아니다, 아니하다(않다), 못하다’가 쓰이면 긴 부정문이라는 내용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의지 부정과 능력 부정, 상태 부정은 구분이 잘 안 돼요.

선생님

의지 부정은 ‘안, 아니하다’ 등을 사용하여 행동 주체의 의지가 작용할 수 있는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며, 능력 부정은 ‘못, 못하다’ 등을 사용하여 행동 주체의 능력이나 그 외의 다른 외부의 원인 때문에 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상태 혹은 단순 부정이란 ‘정화는 키가 작지 않다.’와 같이 의지 부정이나 능력 부정이 아니라 단순히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긴 부정문인 경우, 명령문에서는 ‘마/마라’를 사용하고 청유문에서는 ‘말자’를 사용합니다.

< 보 기 >

문법 과제

‘가다, 던지다, 먹다, 어둡다, 예쁘다’를 활용하여 다양한 부정문을 만들어 봅시다.

- ① ‘가다’를 사용하여 긴 부정문의 명령문을 만들면 ‘위험한 곳에는 가지 마라.’가 됩니다.
- ② ‘던지다’를 사용하여 능력 부정의 긴 부정문을 만들면 ‘민지는 공을 던지지 못했다.’가 됩니다.
- ③ ‘먹다’를 사용하여 능력 부정의 짧은 부정문을 만들면 ‘나는 밥을 못 먹었다.’가 됩니다.
- ④ ‘어둡다’를 사용하여 상태 부정의 긴 부정문을 만들면 ‘하늘이 어둡지 않다.’가 됩니다.
- ⑤ ‘예쁘다’를 사용하여 의지 부정의 짧은 부정문을 만들면 ‘꽃이 안 예쁘다.’가 됩니다.

13. <보기>의 밑줄 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동음이의(同音異義) 관계에 있는 용언들은, 그 기본형은 같지만 다양한 어미를 결합시켜 활용을 해 보면 하나는 규칙, 다른 하나는 불규칙 활용을 함으로써 두 용언의 활용 형태가 서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통해 동음이의 관계의 두 용언이 각각 서로 다른 단어임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 ① 친구가 병이 났다.
동생이 형보다 인물이 났다.
- ② 벽에 바른 벽지가 올다.
시험에 진 어린이가 올다.
- ③ 소나무가 마당 쪽으로 굴다.
어머니께서 빵을 굴다.
- ④ 친구에게 약속 시간을 이르다.
약속 장소에 이르다.
- ⑤ 장작이 벽난로에서 타다.
학교에 가려고 버스를 타다.

14. 다음은 사전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

[1] (받침 없는 체언 뒤에 붙어)

- ① 어떤 상태나 상황에 놓인 대상, 또는 상태나 상황을 겪거나 일정한 동작을 하는 주체를 나타내는 격 조사.
- ② (‘되다’, ‘아니다’ 앞에 쓰여) 바뀌게 되는 대상이나 부정(否定)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바뀌게 되는 대상을 나타낼 때는 대체로 조사 ‘로’로 바뀔 수 있다.

[2] (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 또는 연결 어미 ‘-지’ 뒤에 붙어) 앞말을 지정하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연결 어미 ‘-지’ 뒤에 오는 ‘가’는 ‘를’이나 ‘로’로 바뀔 수 있으며, 흔히 뒤에는 부정적인 표현이 온다.

이 ㉡

[1] (받침 있는 체언 뒤에 붙어)

- ① 어떤 상태를 보이는 대상이나 일정한 상태나 상황을 겪는 경험주 또는 일정한 동작의 주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② (‘되다’, ‘아니다’ 앞에 쓰여) 바뀌게 되는 대상이나 부정(否定)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바뀌게 되는 대상을 나타낼 때의 ‘이’는 대체로 조사 ‘으로’로 바뀔 수 있다.
- ② (‘-고 싶다’ 구성에서 본동사의 목적어나 받침 있는 부사어 뒤에 붙어) 앞말을 지정하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보 기 >

- 어느새 연못 속의 ㉠ 올챙이가 ㉡ 개구리가 되었다.
- 아무리 청소를 해도 방이 ㉢ 깨끗하지가 않다.
- 그 넓던 갈대밭이 모두 ㉣ 뽕밭이 되었다.
- 나는 ㉤ 백두산이 제일 보고 싶다.

- ① ㉠의 ‘가’와 ㉡의 ‘이’는 ‘가[1]’과 ‘이[1]’을 통해 앞 체언의 받침 유무에 따라 선택된 격 조사임을 알 수 있군.
- ② ㉢의 ‘가’는 조사 ‘로’로 바뀌어 쓸 수 있는 걸 보니, ‘가[1][2]’를 통해 ‘되다’ 앞에 쓰여 부정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임을 알 수 있군.
- ③ ㉣의 ‘가’는 ‘를’로 바뀌어 쓸 수 있는 걸 보니, ‘가[2]’를 통해 앞말을 지정하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임을 알 수 있군.
- ④ ㉤의 ‘이’는 조사 ‘으로’로 바뀌어 쓸 수 있는 걸 보니, ‘이[1][2]’를 통해 ‘되다’ 앞에 쓰여 바뀌게 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 조사임을 알 수 있군.
- ⑤ ㉤의 ‘이’는 ‘이[2]’를 통해 앞말을 지정하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임을 알 수 있군.

15.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서술어로 사용된 용언에 접미사나 선어말 어미를 결합시키면 사동이나 피동, 높임, 시간 표현, 주체의 심리적 태도 등 다양한 문법 범주를 실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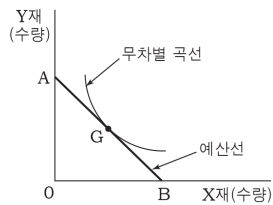
- 할머니께서 진지를 ㉠ 드신다.
- 아버지께서 연을 ㉡ 날리시고 있다.
- 그는 운동장을 열심히 ㉢ 뛰었다.
- 나는 지금 영화관에 ㉣ 가겠다.
- 도둑이 경찰에게 ㉤ 쫓기고 있다.

- ① ㉠의 ‘-시-’와 ㉡의 ‘-시-’는 각각의 행위 주체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선어말 어미이다.
- ② ㉢의 ‘-리-’과 ㉣의 ‘-었-’은 현재나 과거 등의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선어말 어미이다.
- ③ ㉡의 ‘-리-’는 행위 주체인 ‘아버지’가 다른 대상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게끔 만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접미사이다.
- ④ ㉣의 ‘-겠-’은 행위 주체인 ‘나’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선어말 어미이다.
- ⑤ ㉤의 ‘-기-’는 행위 주체인 ‘경찰’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대상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접미사이다.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저소득 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는 대상자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보조,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할인해 주는 가격보조 등이 있다.

이 제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개념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소비자가 X재와 Y재를 구입한다고 할 때, 한정된 소득 범위 내에서 최대를 구입 가능한 X재와 Y재의 수량을 나타낸 선을 예산선이라고 한다. 또한 X재, Y재를 함께 구매했을 때, 만족도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X재와 Y재 수량을 조합한 선을 무차별 곡선이



<그림>

최적의 소비선택은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의 접점(G)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소득보조나 가격보조가 실시되면 실질 소득의 증가로 예산선이 변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마다 만족하는 상품 조합도 변하게 된다. 즉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의 변화에 따라 각 소비자의 최적 선택지점도 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X재와 Y재가 정상재*일 경우, Y재에 대한 X재의 상대적 가격이 ① 떨어지면, 가격비율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예산선이 바뀌게 된다. 이때 상품 조합도 달라져 최적 선택지점 역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X재의 수요는 늘리게 되고 Y재의 수요는 늘리지 않게 되는 것을 대체효과라고 한다. 또한 X재의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예전에 살 수 없었던, X재와 Y재의 상품 조합을 살 수 있게 되었으므로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예전보다 늘어난 것을 소득효과라고 한다. 그러나 상품 가격에는 변화가 없고 소득만 증가하면 상품들 간의 가격비율은 변하지 않으므로, X재와 Y재의 수요는 모두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는 대체효과는 없고 소득효과만 발생하게 된다.

식품과 비식품 구입비를 지출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월 30만 원의 소득보조를 시행했다고 가정해 보자. 어떤 물품을 구입하든 간에 보조금 30만 원을 지출하는 데 그는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그의 입장에서는 식품과 비식품의 가격비율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대체효과는 없으며, 다만 30만 원만큼의 소득효과만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구입하려는 식품에 대해 정부가 가격을 보조해 주는 제도를 시행했을 경우 비식품보다 식품의 소비를 늘리게 되는 경향이 뚜렷하므로 대체효과도 함께 발생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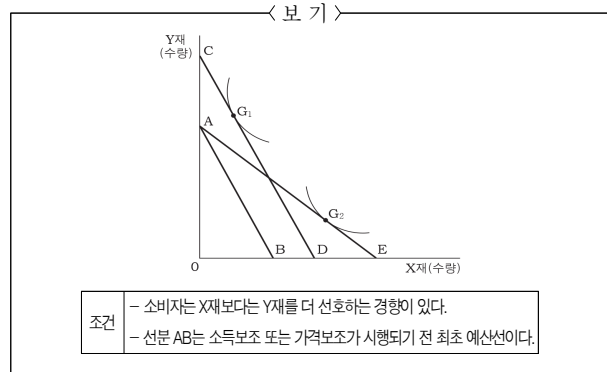
그런데 소득 범위 내에서 식품보다 비식품 구입을 선호하는 성향을 지닌 사람의 입장에서는 식품에 대한 가격보조가 소득보조보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소득보조를 받으면 주어진 예산 내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비식품을 더 많이 구입할 수 있지만, 식품에 대한 가격보조를 받으면 자신의 선호도와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식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행동 예측이 어려운 소득보조보다 소비자 수요를 가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가격보조가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정상재: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재화.

16. 윗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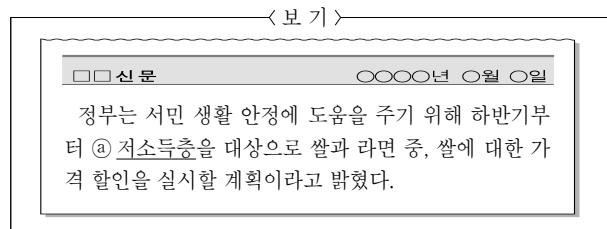
- ① 무차별 곡선의 정의
- ② 상품 조합의 유형별 특징
- ③ 실질 소득과 예산선의 관계
- ④ 최적 선택지점의 변화 원인
- ⑤ 가격보조와 소득보조의 차이

1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해석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예산선이 AB에서 AE로 이동했다면, 소비자의 실질 소득은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예산선이 AB에서 AE로 이동했다면, 소비자는 선호도와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X재를 더 많이 구매할 수도 있겠군.
- ③ 예산선이 AB에서 CD로 이동했다면, X재에 대한 Y재의 상대적 가격비율의 변화가 생겼겠군.
- ④ 예산선이 AB에서 CD로 이동했다면, AE로 이동할 때보다 정부는 소비자의 소비 행동을 더 예측하기 어렵겠군.
- ⑤ 예산선이 AB에서 CD로 이동했다면, AE로 이동할 때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군.

18.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의 신문 기사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책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①의 최적 선택지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 ② 정책이 시행된다면 ①에게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발생할 것이다.
- ③ 정책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쌀에 대한 ①의 수요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 ④ 정책이 시행된다면 ①의 예산선에는 변화가 없지만 무차별 곡선은 변화할 것이다.
- ⑤ 정책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①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 조합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19.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쌀이 떨어져 두 끼를 라면으로 때웠다.
- ②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 큰 고생을 하였다.
- ③ 갈수록 성적이 떨어져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④ 해가 떨어지기 전에 이 일을 마치도록 하여라.
- ⑤ 파란불 신호가 떨어지자 사람들이 건널목을 건넜다.

[20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형의 원리란 작품에서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묶어 어떤 특정한 효과를 얻기 위한 구성 계획을 말한다. 화가는 작품을 창작할 때 자신의 의도를 살려내기 위해서 다양한 조형의 원리를 사용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통일성의 원리이다. 통일성이란 회화의 다양한 요소들이 하나의 작품 속에서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각각의 요소들은 의미 있는 하나의 작품을 구성하게 된다. 회화에서 통일성을 부여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인접'과 '반복'이 있다. 인접은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서로 가까이 놓거나 중첩시켜 회화에 통일성을 주는 방법이고, 반복은 여러 부분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 어떤 요소를 계속해서 반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같은 사물의 반복뿐만 아니라 회화 속의 색깔, 형태, 각도 등의 반복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드가의 작품 '모자 가게'에서는 모자와 꽃등 원형(圓形)의 소재를 반복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형태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인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통일성은 작품에 대한 안정감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자칫 지나치면 감상자의 입장에서 그 작품은 답답하고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다.

화가는 이와 같은 단조로움을 피하고 자신의 의도를 부각시키기 위해 강조라는 원리를 사용한다. 강조란 특정한 부분을 강하게 하여 변화를 주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작품의 주제를 부각시켜 예술적 감흥을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도 있다.

회화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강조의 방법으로는 '대비'에 의한 강조가 있다. 이는 형태나 크기, 명암 등의 대비를 통해 특정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인데, 직사각형들 사이에 원형을 그리거나, 어두운 사물 가운데에 밝은 사물을 그리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다른 강조의 방법으로는 '분리'에 의한 강조가 있다. 분리에 의한 강조는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들과 떨어져 있음으로써 부각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물 간의 배치를 통해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들과 형태나 크기, 명암 등이 유사하더라도 그 대상을 부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방법은 군집과 독립의 대비라고도 할 수 있다. 이때 독립된 대상은 화면의 중심보다 가장자리에 배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감상자는 부각되는 대상만을 바라보다가 자칫 그림 감상을 마치게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화가는 감상자의 시선이 군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집과 독립된 대상을 하나의 선으로 묶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한 작품 안에서 강조의 원리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그 효과는 줄어들 수 있으며, 감상자의 입장에서 강조의 대상이 작품 속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
라는 점이다. 설령 어떤 대상을 부각하려 하더라도 주제나 소재, 표현 양식, 기법 등과의 긴밀한 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2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감상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



토마스 에킨스,
「에그뉴 임상강의실」

(나)



페르난도 보테로,
「폭포」

(가)는 흰색 가운을 입은 교수와 뒤에 위치한 의대생들이, 의사와 간호사가 수술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그림이며, (나)는 바위들과 그 사이로 흐르는 시원한 물줄기를 묘사한 그림이다.

- ① (가)에서 수술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홀로 있는 교수는, 군집으로부터 독립된 대상이므로 감상자의 주목을 끌 수 있겠군.
- ② (가)에서 홀로 있는 교수에게서 수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감상자의 시선이 이어졌다면, 교수가 기대고 있는 구조물은 대상과 군집을 하나로 묶는 선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나)에서 감상자가 통일성을 느꼈다면, 비슷한 형태의 바위들을 반복한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겠군.
- ④ (가)에서는 수술하고 있는 사람들과 교수에게, (나)에서는 물줄기에 감상자의 시선이 끝났다면, 주변과의 명암 대비를 통해 각각의 대상이 부각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가)에서는 수술을 지켜보는 의대생들을, (나)에서는 바위들을 가깝게 혹은 겹치게 배치한 것은 감상자가 작품에서 느낄 법한 답답함을 해소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겠군.

21. 윗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문맥상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강조를 통해 감상자의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깨뜨릴 수 있어야 한다.
- ② 강조하려는 대상이 전체와의 관계에서 유기적 질서를 갖도록 해야 한다.
- ③ 강조의 효과가 강한 것과 약한 것의 배치를 다양하게 시도해 봐야 한다.
- ④ 강조를 통해 작가의 의도를 넘어서는 예술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강조하려는 대상은 작품 속에서 다른 것과는 차별화된 형식을 가질 때 형성된다.

[22 ~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물들은 체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전략들을 진화시켜 왔는데, 삼투조절은 그 중 하나이다. **[삼투조절]**이란 생물이 체액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체내의 수분 양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육상동물과 달리 어류는 물이라는 외부 환경과 직접 접촉하게 되므로 물과 체내의 농도 차이에 의한 삼투현상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때 삼투현상이란 농도가 다른 두 용액 사이에 반투과성 막을 설치하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척추가 있는 대부분의 어류는 물속에서 삼투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자신의 체액 농도를 유지할 수 없어 생존하기 힘들다. 따라서 삼투조절을 통해 체내의 수분 양을 조절해야 한다.

담수어와 해수어는 외부 환경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삼투조절 방식은 서로 반대이다. 담수어의 체액 농도는 담수보다 높고, 해수어의 체액 농도는 해수보다 낮다. 이들 어류의 표피 세포막이 반투과성 막의 역할을 하므로, 삼투조절을 하지 않으면 담수어의 체내에는 외부로부터 수분이 과도하게 유입된다. 반면, 해수어에는 과도한 탈수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들은 끊임없이 삼투조절을 해야 한다.

해수어는 최대한 많은 양의 해수를 마신 후 장에서 물만 흡수하고 염류를 배출함으로써 체액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체내에 수분을 최대한 많이 축적하기 위해 배출하는 오줌 양은 흡수한 수분의 약 10% 정도로 매우 적다. 오줌의 농도도 체액 농도보다 더 높을 정도로 매우 짙다. 해수어의 신장에서는 수분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줌 생성 과정에서 수분을 재흡수하는 작용이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물고기의 아가미에는 염류를 흡수하거나 배출하는 세포가 있다. 이러한 염류세포에 있는 작은 통로를 열어 체내에 유입된 염류를 활발히 배출함으로써 해수어는 체액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삼투조절을 할 때는 에너지가 소모된다. 해수어는 삼투조절을 위해 휴식기 에너지 소모량의 5% 이상을 사용한다. 그런데 에너지 소모량은 체액 농도와 주위 환경과의 차이, 표피 세포막의 수분 투과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강에서 태어난 연어는 바다로 내려가면 해수어와 같은 방법으로 삼투조절을 해서 수분을 최대한 체내에 저장하고 염류를 배출한다. 그러나 산란기에 다시 모천으로 회귀하게 되면 이와는 반대의 방법으로 삼투조절을 한다. 따라서 연어는 바다에서는 수분 손실로 인한 체형 수축이 일어나지 않으며, 강에서는 수분 유입으로 인해 풍선처럼 몸이 불어나는 일도 없다. 연어와 같이 물이라는 환경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대부분의 어류에게 있어서 삼투조절은 주위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용이다.

* 용매: 용액을 구성하는 원래의 액체.

22. 밑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해수의 농도는 해수어의 체액 농도보다 높다.
- ② 대부분의 해수어에서 표피 세포막은 반투과성 막의 역할을 한다.
- ③ 삼투가 일어나면 용매는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한다.
- ④ 삼투조절은 체액의 농도를 주변 환경과 비슷하게 유지하는 현상이다.
- ⑤ 환경 변화에 따라 삼투조절에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은 달라질 수 있다.

23. **[삼투조절]**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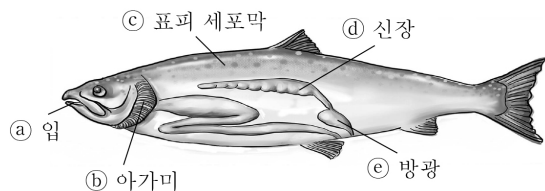
< 보 기 >

- ㄱ. 국이 싱거워서 소금으로 간을 맞춰 먹었다.
- ㄴ. 더운 여름날 차가운 물에 적신 수건으로 몸을 닦았다.
- ㄷ. 격렬한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린 운동선수가 물을 마셨다.
- ㄹ. 물을 많이 마시고 잤더니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오줌 양이 많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4.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 ~ ㉣에 대해 추론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강으로 회귀한 연어]

- ① ㉠로 체액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물을 많이 들이마시려 하겠군.
- ② ㉡에서는 염류 이동 통로가 닫히면서 흡수된 염류의 누출을 최소화 하겠군.
- ③ ㉢를 통해 외부의 수분이 체내로 유입되는 현상이 일어나겠군.
- ④ ㉣에서는 수분을 재흡수하는 작용이 바다에서보다 활발하지 않겠군.
- ⑤ ㉣에서 배출되는 오줌의 양은 바다에서보다 더 많겠군.

[25 ~ 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대 그리스인들은 ‘정의(正義)’를 우선적으로 ‘조화(調和)’로 받아들였다. ‘調’와 ‘和’는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잘 어울리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정의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갖게 된다. 더 나아가 그들은 대립자들의 조화가 정의를 가져온다고 생각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세계가 어둠과 밝음, 어른과 아이 등과 같은 대립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이들 사이에는 항상 갈등과 투쟁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대한 그들의 고민이, 정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기본적인 맥락이다.

아낙시만드로스가 말한 ‘우주의 질서’는 조화로서의 정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그는 우주를 구성하는 물, 불, 공기, 흙이라는 원소들이 비슷한 힘을 가지고 서로 역동적으로 작용하여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 그에 따르면 힘의 균형이 깨지면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데, 그것이 불의(不義)이다. 그런데 아낙시만드로스는 불의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미약했던 것들은 강해지고 막강했던 것들은 약해져서 다시 우주의 질서가 돌아온다고 보았고, 이것이 곧 우주가 정의를 되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히포크라테스의 ‘건강’ 개념에도 조화로서의 정의 개념이 반영되어 있다. 그에게 건강은 몸 전체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 사이의 조화였다.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요점은 병이 났을 때의 치유 방법에 있다기보다는 식이요법을 통한 예방에 있다. 식이요법이란 몸의 조화를 잃지 않게 하는 것이다. 건강을 잃는다는 것, 즉 병을 얻는다는 것은 몸의 조화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조화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몸의 정의를 찾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었던 개념인 정의는 시간이 흐르면서 특정 분야인 윤리, 정치에 주로 적용되는 개념이 되었다.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파생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그 구성원들은 윤리적, 정치적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념의 적용 양상이 변화하는 과정에서도 정의가 지니고 있었던 조화라는 의미는 계속 이어졌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 개념을 윤리와 정치에 적용하였다. 윤리적 측면에서, 그는 정의가 지닌 조화의 의미를 ‘중용’이라고 규정한다. 중용은 양극단을 제외하고 그 사이에서 상황에 따른 최선을 선택하는 윤리적 탁월성이다. 예를 들면, 용감은 무모와 비겁 사이의 중용이고, 절제는 방탕과 무감각 사이의 중용이다. 즉 중용은 인간 덕성에서의 조화로움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정치적 측면에서, 그는 평등과 합법성이 결합된 ‘법 앞에서의 평등’으로 정의를 규정한다. 이는 사회의 조화로운 양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이 정의로우려면 법을 제정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정의로운 윤리를 바탕으로 한 행위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25. 밑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개념의 통시적인 변화를 설명하고, 앞으로 일어날 변화 양상을 예측하고 있다.
- ②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설정하고, 각각의 견해에 대해 사례를 들어 비판하고 있다.
- ③ 어떤 현상의 문제점을 상반된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고, 절충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 ④ 특정한 이론과 관련된 개념들을 제시하고, 이론에 대한 근거들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있다.
- ⑤ 특정 개념의 적용 양상들을 제시하고, 각각의 양상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26.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대 그리스인들은 대립자들의 조화에서 정의가 비롯된다고 생각했다.
- ② 아낙시만드로스는 우주의 질서가 무너진 것을 불의라고 규정했다.
- ③ 아낙시만드로스는 원소들의 조화를 되찾게 하는 힘이 대립자들의 정의라고 규정했다.
- ④ 히포크라테스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그 예방을 중시했다.
- ⑤ 히포크라테스는 몸 전체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 사이의 조화를 건강이라고 보았다.

27. 밑글의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의 ㉠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트라쉬마코스는 정의를 ‘강자의 이익’이라고 주장한다. 강자인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을 제정하는데, 피지배자들이 이에 복종하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 법을 위반하는 피지배자는 범법자로 처벌받는다.

- ① ㉠이 강조하는 법은 중용의 덕성을 보편화하고 있군.
- ② ㉠은 계층 간의 평등 실현을 위해 법을 제정하고 있군.
- ③ ㉠은 지배자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군.
- ④ ㉠이 규정한 정의 개념에는 피지배자들의 자발적 실천이 전제되어 있군.
- ⑤ ㉠은 개인의 정의로운 윤리를 바탕으로 법이 제정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군.

[28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염분차 발전이란 해수와 담수의 염분 농도 차이를 통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로서, 대표적인 방법으로 역전기투석 발전이 있다. 이 방식은 전기를 이용해 염분을 제거하여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전기투석의 원리를 역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역전기투석 발전기의 기본 구조는 두 개의 전극 사이에 음이온 교환막과 양이온 교환막이 여러 장 번갈아 설치된 형태이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전기 에너지가 생산된다.

먼저 가느다란 기공(구멍)이 뚫려 있는 교환막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해수를, 다른 한쪽은 담수를 흐르게 하면 농도 차에 의해 해수에 있는 나트륨 이온(Na^+)과 염화 이온(Cl^-)은 교환막의 기공을 통해 담수 쪽으로 확산되려고 한다. 이때 농도 차이가 클수록 이동하려는 이온의 양은 늘어난다. 그런데 양이온 교환막의 기공에는 음전하를 지닌 작용기*를 여러 개 설치하여 나트륨 이온만을 교환막의 기공으로 끌어들이고, 음이온 교환막의 기공에는 양전하를 지닌 작용기를 여러 개 설치하여 염화 이온만을 교환막의 기공으로 끌어들이는다.

이때 기공 내에 들어온 이온은 일단 한 작용기에 결합하지만 담수 쪽으로 확산하려는 힘에 의해 다시 떨어졌다가 다음 작용기에 재결합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 과정을 거쳐 양이온인 나트륨 이온은 양이온 교환막을 통하여, 음이온인 염화 이온은 음이온 교환막을 통하여 해수에서 담수로 이동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담수에도 양이온과 음이온이 존재하게 되어, 양이온 교환막을 경계로 나트륨 이온의 농도 차가, 음이온 교환막을 경계로 염화 이온의 농도 차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온의 농도 차는 전기적 불균형 상태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교환막을 사이에 두고 전위차, 즉 전압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양이온 교환막과 음이온 교환막 한 쌍을 셀(cell)이라고 하는데, 두 교환막이 각각 전압을 띠고 있고, 그 사이에는 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 전해질*이 흐르고 있으므로 셀은 전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전극 사이에 셀을 여러 장 배열할수록 높은 전압을 얻게 되는데, 이는 전지 여러 개를 직렬로 연결시킨 효과와 같다. 또한 각 셀에서 발생한 전압은 모두 합쳐지게 되므로, 양 끝에 위치한 두 전극 사이에는 높은 전위차가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두 전극 사이에 전위차가 발생하면 전자가 이동하게 된다. 그러나 배열된 셀들의 양 끝에 위치한 전극에 전위차가 생기더라도 두 전극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전자가 없으므로 전자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야 한다. 교환막에서 염화 이온이 이동하는 방향의 끝에 위치한 전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반대의 전극에서는 환원 반응이 잘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성을 활용하여 산화 반응이 잘 일어나는 전극에 철 2가(Fe^{2+}) 이온을 흘려주면 그 이온은 전극에 전자를 넘겨 주고 철 3가(Fe^{3+}) 이온이 되고, 통로를 통해 반대 전극으로 이동한 후 다시 전자를 넘겨 받아 철 2가(Fe^{2+}) 이온이 된다. 이와 같이 두 전극을 통해 전자를 넘겨 주고 넘겨 받는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전자는 활발하게 이동하게 되고, 따라서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 작용기: 분해되지 않고 마치 한 원자처럼 행동하는 원자들의 덩어리로 화합물의 성질을 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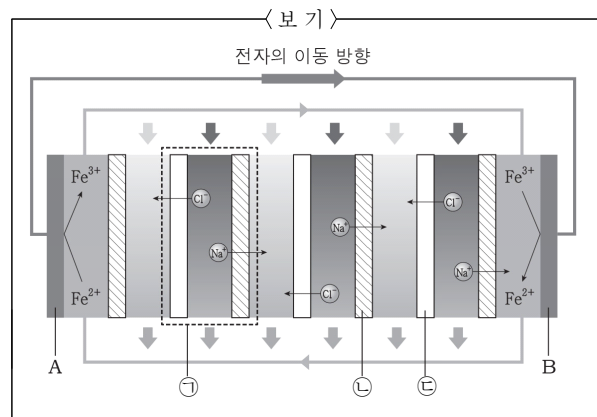
* 전해질: 전기를 통하게 하는 물질.

* 산화-환원 반응: 산화란 전자를 넘겨 주는 것을, 환원이란 전자를 넘겨 받는 것을 의미함.

28.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두 전극 사이의 전위차는 전자를 이동하게 한다.
- ② 나트륨 이온은 양전하를 지닌 작용기와 결합하게 된다.
- ③ 이온의 이동이 가능한 전해질로 인해 셀은 전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 ④ 전기투석은 전기를 이용하는, 역전기투석은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 ⑤ 이온의 이동 방향에 따라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의 위치가 결정된다.

[29 ~ 30] <보기>는 역전기투석 발전의 구조도이다. 밑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29번과 30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29.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 ~ ㉢을 분석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전극 사이의 전위차는 커진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의 기공에 양전하를 지닌 작용기를 설치한다면 막을 통과하는 이온의 종류도 달라지겠군.
- ③ ㉡를 경계로 해수와 담수의 농도 차이가 클수록 담수 쪽으로 이동하려는 이온의 양은 많아지겠군.
- ④ ㉢의 기공에 작용기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이온의 확산은 이루어지지 못하겠군.
- ⑤ ㉠과 ㉢에 기공이 없다면 교환막을 사이에 두고 전기적 불균형은 발생하지 않겠군.

30. 밑글의 내용을 근거로 다음의 질문에 대해 대답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모든 조건이 같다고 가정할 때, <보기>의 장치에서 양이온 교환막 자리에 음이온 교환막을, 음이온 교환막 자리에 양이온 교환막을 설치한다면 어떤 변화가 발생할까?

- ① A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 ② A에서 철 2가 이온은 전자를 잃게 될 것이다.
- ③ B에서 철 3가 이온은 전자를 잃게 될 것이다.
- ④ A와 B 사이의 전압이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다.
- ⑤ A와 B 사이의 전자 이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을 연가 자욱한 저녁 들판으로
상행 열차를 타고 평택(平澤)을 지나갈 때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말아 다오.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낮익은 얼굴들이 네 곁에 있지 않느냐.
황혼 속에 고향치는 원색의 지붕들과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들
흥미 있는 주간지를 보며
㉠ 고개를 끄덕여 다오.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같은
심야 방송이 잠든 뒤의 전파 소리 같은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 다오.
확성기마다 울려 나오는 힘찬 노래와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 경쾌하나.
예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 즐거운 여행을 해 다오.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 다오.
놀라울 때는 다만
'아!'라고 말해 다오.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 침묵해 다오.
침묵이 어색할 때는
오랫동안 가문 날씨에 관하여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에 관하여
성장하는 GNP와 증권 시세에 관하여
㉤ 이야기해 다오.
너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 김광규, 「상행(上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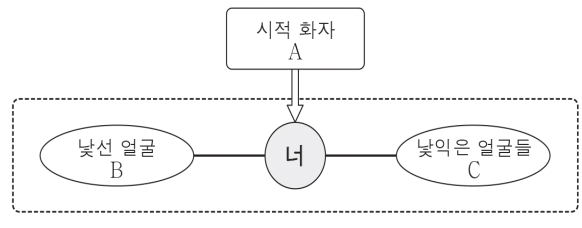
31.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수미상관의 방법으로 작품 전체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
- ④ 하강 이미지를 통해서 대상의 속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토속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향토적 정취를 드러내고 있다.

32. <보기>를 바탕으로 시적 화자와 대상과의 관계를 분석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시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파생된 현실의 부정적 상황을 도외시한 채 쾌락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간 군상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시인은 삶에 대한 진지한 고뇌와 자각이 인간의 삶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하게 하는 계기가 됨을 시적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말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의 '너'를 시적 대상이자 청자라고 할 때,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① A는 개인주의적 태도에 대한 자기 성찰의 필요성을 '너'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
- ② B는 사회 이면에 존재하는 근본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인물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C는 사회 현실을 외면한 채 자신의 욕망에만 집착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④ A는 B의 인식 변화를 통해 '너'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⑤ A는 '너'가, C로 대표되는 삶의 유형으로부터 벗어나 냉철한 인식을 지니도록 요청하고 있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시에서는 화자의 메시지를 직설적으로 전달하기보다 간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표현 효과를 높이기도 한다. 특히 반어는 실제 언어로 표현된 표면적 진술 내용과 화자의 내적 표현 의도가 서로 반대되도록 표현하는 기법이다. 이와 같이 반어는 겉으로 드러난 표현 속에 감춰진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 ① ㉠은 주어진 현실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군.
- ② ㉡은 사회의 침울한 분위기가 외형적 경제 발전에 의해 가려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군.
- ③ ㉢은 향락에 탐닉하여 이성적 판단이 마비된 삶이 결코 즐겁지만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군.
- ④ ㉣은 불합리한 현실 세계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군.
- ⑤ ㉤은 사소해 보이지만 평범한 일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군.

[34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남도를 떠돌던 '그'가 과수원 수림을 우연히 찾아들게 된다. '그'는 수림 주인으로부터 시장이의 사연을 듣는다.

눈치보기가 귀찮아서라더라고—

할 말이 없어 한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그가 마지못해, 그 시장이*가 그토록 시골 집터를 소망하게 된 사연을 물었을 때 주인 사내는 그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그걸 무슨 관계의 조절이라고 말을 하던가.

사람이 사는 것은 결국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를 조화롭게 잘 조절해 나가는 과정에 다름 아닌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럴 듯한 말이었다. 아니 누가 굳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는 그 자신의 도회생활의 체험으로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세상이 그토록 복잡해지고 게다가 사람이 무더기로 몰려 사는 도회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선 그게 더욱 실감나는 말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는 그 도회의 삶에서 엄청난 [피곤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도회지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 관계를 만드는 일에 너무 몰두해 버린 나머지 자신의 얼굴과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도회지 사람들의 삶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있고 사람의 모습이나 그 자리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것도 전혀 바람직스럽거나 온당한 관계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중심의 관계만을 원했다. 그리고 상대방을 탐욕스럽게 꺾어 이겨서 그를 맞이하고 다스리는 관계를 만들려 하였다. 그런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의 얼굴과 자리를 팔려 하였다. 그것은 소유와 지배의 관계였다.

주인 사내도 어쩌면 그런 생각에서 한 말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건 다시 그 시장이로부터 들은 소리였을지 모르지만, 도회지 사람들이 끔찍이도 소망스럽게 여기는, 도회로 도회로 몰려들면서 모든 구실을 거기다 밀어 붙이곤 하는 그 교육이라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주인 사내가 그 도회지의 교육을 가리켜 눈치놀음이라고 말할 게 바로 그 소리 한가지였다.

도회지에서의 교육이란 사람의 옳은 모습이나 그가 원래 사람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남을 이기고 지배할 것인가, 그 탐욕과 능력을 기르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사람의 모습이나 자리가 없으니 오로지 관계만을 배울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지극히 부박하고 배타적이고 그래서 끝내는 파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관계만을 애초에 사람의 자리에 없는 데서 그 관계만을 구하자니 힘들고 지쳐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사람들은 그 관계를 구실로 때 없이 이웃을 구속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려 하였다. 그것은 결국 [눈치놀음]을 익히게 하였고 끝내는 그 눈치놀음으로도 견뎌내기 어려운 세상을 만들었다.

관계를 구하는 일에 잘못이 있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관계다운 관계를 바랄 수가 없는 형편에 문제가 있었다. 아니 그는 이제 사람의 자리가 없는 그 관계로서만의 세상 자체에, 아니면 바로 그 관계 자체에 두려움과 피로감이 생기고 있었다.

어떻게 그 관계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세상은 없을까.....

그가 여러 번 생각해 온 일이었다. 그리고 그의 오랜 [유랑 습벽]에는 이를테면 그런 관계를 떠나 사는 사람을 만나

고 싶은 은밀한 소망이 깃들어 있었다.

눈치 보기가 싫어서라고 말한 그 시장이의 피곤기 역시도 그런 비슷한 것이었음이 분명하였다. 그리고 그래서 그토록 벽지 시골에 자기만의 집터를 소망했음이 분명하였다.

그렇다면 ㉠ 시장이는 정말로 그 폐원 같은 사내의 수림에서 그의 피곤기를 덜 수가 있었던 것이다.

시장이가 생전에 그 집터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 것은 실상 큰 문제가 아니었다. 그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었거나 말았거나 그는 그 수림을 만남으로써 그 소유의 지배의 끈으로 엮어진 관계의 굴레에서 잠시나마 자신의 삶을 풀어 놓을 수가 있었을 터였다. 그리고 그 작자의 [집터]에 대한 소망이 수림 근처에 계속 머물러 버린 사실로 보아 자신도 그걸 느끼고 있었음이 분명하였다.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 과원의 수림에서 비로소 그가 잃어버리고 찾아 헤매던 사람의 모습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인 사내는 이를테면 시장이가 만난 처음이자 마지막 사람이랄 수 있었다. 사내의 삶은 이를테면 그 지겹고 피곤한 관계를 만들지 않고 살아가는 [외톨박이]의 그것이었다. 그는 그 관계를 만들지 않은 대신 누구보다도 자신의 자리와 얼굴 모습이 뚜렷한 인간이었다. 아니, 그는 소유나 지배의 탐욕스런 관계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분명해질 수 있었다. 그는 사람에게 대해서 뿐 아니라 그의 과원에 자라고 있는 나무 한 그루조차 소유하지를 않으려 하였다.

—한번 심거 준 나무를 뺏기지 다시 파옵니까. 나무들도 거기서 그냥 자라나게 두었어요. 푸나무 한 그루도 다 제 생명을 지니 사는 것이라 나무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지요. 생명 있는 것을 이리저리 파웁기는 버릇들이 많은지, 그런 건 모두 그 남의 생명을 너무 내 것이라고들 여기는 탓일 게요. 남의 생명을 내 것이라 우기면 내 생명도 누군가 그렇게 우기고 나설 일이 생길 거 아니겠소. 사람은 사람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각기 제 자리에서 사는 겐니다. 나무의 생명도 그만 권리는 있는 거외다.....

남의 땅에 심은 나무들은 어떻게 되었느냐는 그의 물음에 주인 사내가 모처럼 나무라는 어조로 일깨워 준 말이었다.

사람은 사람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그것은 참으로 기묘한 관계였다.

사내의 삶은 나무 한 그루의 생명조차도 끝끝내 소유를 거부해 온 것이었다. 그리하여 자신과 그 나무 사이에 무리한 관계를 만들지 않았다. 그런 관계를 만들지 않음으로써 스스로의 자리를 분명히 하였다. 스스로의 자리가 분명해짐으로써 사내는 오히려 그 나무들과의 의좋은 관계를 지어내고 있었다.

— 이청준, 「새와 나무」 —

* 시장이: 시(詩)를 쓰는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말.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를 교체하여 사건 전개와 양상을 다면화하고 있다.
- ② 시대 배경을 암시하는 상징적 표현을 통해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③ 계층 간 갈등을 첨예하게 부각하여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④ 서로 다른 사건을 병렬 배치하여 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⑤ 특정 인물의 시각을 바탕으로 부재하는 대상의 삶을 재구성하고 있다.

35.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가 긴장감을 느끼는 대상이다.
- ② ‘그’가 경이감을 느끼는 대상이다.
- ③ ‘그’가 동질감을 느끼는 대상이다.
- ④ ‘그’가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이다.
- ⑤ ‘그’가 지겨움을 느끼는 대상이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주체가 자신의 존재를 과도하게 드러낼 때, 주체와 타자는 피상적 관계에 놓인다. 이때 피상적 관계란 주체와 타자와의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는 형식적인 관계를 의미하는데, 그러한 관계가 많이 형성될수록 개인은 자신의 존재감을 잃게 되고 사회는 획일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은 타자와의 관계를 형식적인 소통으로 인식하게 되어 절망감을 느끼기도 하고, 존재의 차이점을 인정하는 새로운 관계를 추구하기도 한다.

- ① [피곤기]는 ‘도회지’에서의 관계를 형식적인 소통으로 인식하게 된 ‘그’의 절망감과 관련이 있겠군.
- ② [눈치놓음]은 형식적 관계를 배우고 가르치는 ‘도회지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그’의 부정적 태도와 관련이 있겠군.
- ③ [유랑 습벽]은 자기 존재를 과도하게 드러내는 ‘도회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추구하려는 ‘그’의 소망과 관련이 있군.
- ④ [집터]에는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는 ‘도회지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주인 사내’의 바람이 담겨 있군.
- ⑤ [외톨박이]는 ‘도회지’에서의 피상적 관계와 상관없이 자기 존재감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주인 사내’의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군.

[37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방초(芳草)를 밟아 보며 난초 영지도 뜯어보자
배 세워라 배 세워라
일엽편주(一葉片舟)*에 실은 것이 무엇인가
지국충(至智聰) 지국충(至智聰) 어사와(於思臥)
㉠ 갈 때는 안개뿐이요 올 때는 달이로다

<춘(春) 7>

곳은 비 덮어 가고 시냇물이 맑아 온다
배 띄워라 배 띄워라
㉡ 낫대를 둘러메니 깊은 홍을 못 참겠다
지국충(至智聰) 지국충(至智聰) 어사와(於思臥)
㉢ 연강첩장(煙江疊嶂)*은 뒤라서 그려낸고

<하(夏) 1>

옷 위에 서리 오되 추운 줄을 모르겠다
땃 내려라 땃 내려라
㉣ 조선(釣船)*이 좁다 하나 부세(浮世)*와 어떠한가
지국충(至智聰) 지국충(至智聰) 어사와(於思臥)
㉤ 내일도 이리하고 모래도 이리하자

<추(秋) 9>

[A] 물가의 외로운 술 혼자 어찌 씹씩하고
배 매어라 배 매어라
험한 구름 한(恨)치 마라 세상을 가리온다
지국충(至智聰) 지국충(至智聰) 어사와(於思臥)
파랑성(波浪聲)* 염(厭)치* 마라 진원(塵喧)*을 막는도다
<동(冬) 8>

—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

- * 일엽편주: 한 척의 작은 배.
- * 연강첩장: 안개 낀 강과 겹겹이 쌓인 산봉우리.
- * 조선: 낚싯배.
- * 부세: 헛되고 덧없는 세상.
- * 파랑성: 물결 소리.
- * 염치: 싫어하지.
- * 진원: 속세의 시끄러움.

37.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문형 어구를 반복하여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대상을 점층적으로 강조하여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③ 통사 구조가 유사한 구절을 대응시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④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다채롭게 조성하고 있다.
- ⑤ 상승 이미지와 하강 이미지를 반복하여 심리 변화의 양상을 표현하고 있다.

38. ㉠ ~ ㉤을 중심으로 시적 상황을 추리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에서 화자가 친숙하게 대하는 소재인 ‘달’은 자연에 동화된 삶을 드러내는군.
- ② ㉡에서 화자의 흥을 돋우는 ‘낫대’는 자연에서 느끼는 충만감을 고조시키는군.
- ③ ㉢에서 ‘그려낸’ 것으로 여기는 ‘연강첩장’은 자신을 둘러싼 자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는군.
- ④ ㉣에서 ‘부세’와 대응하는 ‘조선’은 세속적 삶에 대한 화자의 미련을 반영하는군.
- ⑤ ㉤에서 화자가 기대하는 ‘내일’과 ‘모래’에는 현재의 삶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심리가 내재되어 있군.

39. [A]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강호 한 꿈을 꾸지도 오래러니
입과 배가 누가 되어 어즈버 있었도다
저 물을 바라보니 푸른 대도 하도 할사
홀룡한 군자들이 님대 하나 빌려스라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 청풍 벗이 되어
임자 없는 풍월 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무심한 백구(白鷗)야 오라 하며 말라 하라
다들 이 없을 건 다만 이인가 여기노라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

- ① <보기>는 [A]와 달리 현실 개혁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A]는 <보기>와 달리 현재의 삶에 순응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 ③ [A]의 ‘구름’은 <보기>의 ‘명월’과 달리 부정적 현실을 차단하는 자연물로 기능하고 있다.
- ④ [A]는 ‘물가’와 ‘세상’의 대비를 통해, <보기>는 ‘강호’와 ‘풍월 강산’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A]와 <보기> 모두 화자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김선옥이 가출한 뒤 보살공에 욕심이 난 형욱은 가짜 선옥을 집으로 데려오는데, 부인 이씨만은 그가 남편이 아니라며 거부하다가 병자로 몰려 천정으로 쫓겨난다. 결국 조정에게까지 이 일이 알려지면서 임금도 어사를 파견하고, 진여사는 삼 년 만에 상원암에서 진짜 김선옥을 찾는다. 그리고 이씨의 정절을 선옥에게 확인시키고자 그를 종인(從人)으로 변장시킨 후 재판을 재개한다. 이때 김선옥의 부친인 김 처사와 이씨의 부친인 이 통판을 비롯한 양가 가족들과 하인 등도 관청에 모이게 한다.

[A] “옛말씀에 하였으되, ‘만승지군(萬乘之君)은 빼앗기 쉬우나 필부필부(匹夫匹婦)의 뜻은 빼앗지 못 한다.’ 하였으니, 이제 왕명으로 죽이시면 진실로 달게 여기는 바이오나, 다만 부군을 만나지 못하고 죽자오면 미망인의 원혼은 구제할 것이 없을 것이요, 일후에 부군이 비록 돌아와도 진위를 분변할 자가 없사오니 지아비의 신세가 마침내 결인을 면치 못할지라.”

라고 하고 죽기를 재촉하였다. 어사가 크게 노하여,

“네 일개 요망한 여자가 심성이 교활하고 사악하여 아래로 김씨 문중의 천륜을 의심케 하고, 위로 천청(天聽)을 놀라게 하여 조정과 영음이 분란케 되었으매, 벌써 거리에 머리를 달아 여러 백성을 징계할 것이로되, 성상의 호생지덕(好生之德)으로 나를 보내서 자세히 살피라 하시어, 내 열음에서부터 너의 요사스럽고 교활한 심정을 이미 알았으나 성상의 너그럽고 어진 도를 본받아 형장(刑杖)을 쓰지 아니하고 좋은 말로 자식같이 알아듣도록 타일렀으니, 사람이 목석(木石)이 아니거늘 일항 고집하여 조정 명관(命官)을 무단히 면박하며 어지럽고 사나운 말로 송정(訟庭)에 발악함이 가하겠는가?”

하고 종인(從人)을 꾸짖어,

“이씨를 형추(刑推) 거행하라.” 하였다.

선옥이 소리를 크게하여 나줄을 불러,

“병인(病人) 이씨를 형추하라.”

하니, 나줄들이 미처 거행치 못하여, 문득 이씨가 가마 속에서 크게 외쳐 이르기를,

“어사는 왕인(王人)*이라, 이 곧 백성의 부모요, 상하 관속(官屬)은 모두 나의 집 하인이라.”

하고 가마의 주렴을 떨치고 바로 청상(廳上)에 올라 어사의 종인을 붙들고, “장부가 어디에 갔다가 이제야 왔나뇨?”

하며 인하여 혼절하니, 통판이 딸 아이의 혼절함을 보고 대경실색하여 약을 갈아 입에 넣고 사지를 만지며 부르짖었다. 남자가 겨우 정신을 수습하여 눈을 들어 보니 부군이 또한 기절해 있었다. 부친으로 더불어 치료하니, 당상 당하에서 보는 자가 놀라 괴이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없었고 처사의 부부와 [송정]에 있던 자가 그 곡절을 알지 못하고 먼먼이 서로 보아 어떻게 할 바를 깨닫지 못하며, 가짜 선옥과 형욱은 낮이 훤빛이 되어 떨기를 마지 아니하였다.

이때 어사가 광경을 보니 이씨의 절개도 가늠하거니와 그 선옥의 진위를 아는 지혜를 마음으로 더욱 탄복하고 몸소 창밖에 나아와 이씨와 선옥을 데리고 들어와 즉시 이씨로 수양딸을 정하였다. 이씨가 부녀지례(父女之禮)로 보니 어사가 선옥과 이씨를 가까이 앉히고 이씨더러 물었다.

“여아는 어찌 가부의 진가를 알았느뇨?”

이씨가 대답하였다.

“가부의 앞니에는 참깨만한 푸른 점이 있사오매 이로써 안 것이요, 다른 데는 저 늙과 과연 추호도 차이가 없소이다.”

어사가 그 영민함을 차탄하고 선옥에게 일러,

“너의 부인이 나의 여아가 되었으니 너는 곧 나의 사위라. 너희 둘이 이제 만났으니 각각 정회도 펴려니와 우선 네가 [절]에서 떠난 연고를 자세히 하여 피차 의혹되는 마음이 없게 하라.”

라고 하니, 선옥이 주저하고 즉시 말을 못하였다. 이씨가 말하였다.

“장부가 할 말이면 반드시 실상(實相)으로 할 것이거늘 어찌 이같이 주저하느뇨?”

선옥이 그제야 이씨를 향하여 말하였다.

“내 모년월일야(某年月日夜)에 중의 의관을 바꾸어 입고 내려와 그대의 [처소]에 이르러 보니 그대 어떤 의관한 남자와 더불어 회롱하는 그림자가 창밖에 비쳤으매, 매우 분노하여 들어가 그대와 그 늙을 모두 죽이고자 하다가 도로 생각하니, ‘만일 그러하면 누명이 나타나 나의 집안의 명성이 더러워질 것이라. 차라리 내 스스로 죽어 통한한 모양을 아니 보리라.’하고 [강변]에 나아가 굴원(屈原)을 찾고자 하다가 차마 물에 들지 못하고 도로 절을 향하고 오다가 또 생각하니, ‘내 만일 집으로 돌아가면 그 분한 심사를 항상 풀지 아니할지라. 이러할진댄 어찌 가정을 이룬 즐거움이 있으리오? 차라리 내 몸을 숨겨 세상을 하직하고 세월을 보내리라.’ 하여 그 길로 운산을 바라보고 창망히 내달려 우연히 함경도 단천 땅에 이르러 [상원암]이라 하는 절에 들어가 수운대사의 상좌가 되었으나, 대인을 만나 종적을 감추지 못하고 이제 이같이 만났으니 알지 못하겠도다, 그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더뇨?”

남자가 눈물을 흘려 의상을 적시며 이르기를,

[B] “장부가 이렇게 나의 마음을 모르나뇨? 이같이 의심할진댄 어찌 그때 바로 들어와 한을 풀지 아니하였나뇨? 그때 그 사람은 지금 송정에 있으매 장부가 보고자 하나이까?”

하고 시비 옥란을 부르니 청하에 이르렀다. 남자가 가리켜 말하기를,

“이 곧 그때의 의관한 남자라.”

하니 선옥이 물었다.

“여자가 어찌 의관이 있으리오?”

남자가 대답하였다.

“첩에게 묻지 말고 옥란에게 물어보소서.”

하니, 선옥이 옥란에게 물었다.

“네가 옥년전 모월 모일 밤에 어떤 의관을 입었더뇨?”

옥란이 반나절이나 생각하더니 고하였다.

“소비(小婢)가 그때 아이 적이라, 남자가 공자의 도복을 지으시매 앞뒤 수품과 길이 장단이 맞는가 시험코자 하여 소비에게 입히시고 두루 보실 제, 소비가 어리고 지각이 없어 공자가 절에서 보낸 **갓**이 벽에 있거늘 **장난으로 내려 쓰**고 웃으며 남자에게 여쭙되, ‘소비가 공자와 어떠하니까?’ 하니, 남자가 또한 웃으시고 꾸짖어 바빠 벗으라고 하기로 즉시 벗어 도로 걸었사오니 이밖에는 의관을 입은 적이 없사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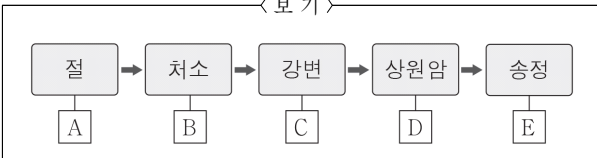
라고 하였다. 선옥이 듣기를 다하고 자기의 지혜가 없음과, 병설 같은 이씨를 의혹하던 일과, 이씨의 중간 **축출*하던 일**을 일일이 생각하니 후회막급이라.

* 천청(天聽): 임금의 귀, 곧 임금을 가리킴. * 형장(刑杖): 형벌을 집행하는 도구.
* 송정(訟庭): 송사를 처리하는 곳. * 형추(刑推): 죄인을 치며 죄를 깨어 물음.
* 왕인(王人): 왕명에 의해 내려온 관원. * 축출(逐出): 쫓아내거나 몰아냄.

- 작자 미상, 「화산중봉기」 -

40. <보기>는 인물의 이동 경로를 구조화한 것이다. 이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① ‘선옥’은 ‘이씨’를 만나기 위해 평소와는 다른 옷차림으로 A에서 B로 이동했다.
- ② ‘선옥’이 B에서 C로 이동한 이유는 ‘이씨’에 대한 분노 때문에 가문의 명예를 더럽힐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③ ‘선옥’이 C에서 다시 A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이씨’와 앞으로 함께할 삶이 부질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 ④ ‘선옥’이 C에서 D로 이동한 것은 ‘수운대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였다.
- ⑤ ‘선옥’이 D에서 E로 이동한 사실을 ‘처사 부부’는 짐작하지 못했다.

4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는 고전소설의 다양한 양상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남녀 주인공이 헤어져 고통과 시련을 겪다가 재회하는 구조가 드러난다. 또한 남자 주인공의 실종으로 인해 진가(眞假) 여부를 밝히는 재판까지 벌어지는 등 송사소설의 특징이 나타나기도 하며, 마지막으로 궁지에 몰리면서도 절개를 지키려는 여자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정절담(貞節談)의 특징도 지니고 있다.

- ① ‘어사’가 ‘이씨’로 수양딸을 정하는 것에는, 여자 주인공의 지조와 절개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군.
- ② ‘앞니’의 ‘푸른 점’은,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의 진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군.
- ③ ‘대인을 만나’게 된 사건은, 시련을 겪던 남녀 주인공이 재회하는 바탕이 되는군.
- ④ ‘갓’을 ‘장난으로 내려 쓰’는 것은, 여자 주인공의 정절을 시험하는 행위이자 남녀 주인공이 분리되는 원인이 되는군.
- ⑤ ‘축출하던 일’은, 남자 주인공의 실종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자, 여자 주인공이 궁지에 몰렸던 상황과 관련되는군.

42. [A]와 [B]에 나타난 인물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는 상대방을 걱정하는, [B]에는 상대방을 신뢰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 ② [A]에는 타인의 권위를 인정하는, [B]에는 타인을 원망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 ③ [A]에는 자신의 진심을 숨기려는, [B]에는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려는 태도가 드러난다.
- ④ [A], [B] 모두 과거의 일을 후회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 ⑤ [A], [B] 모두 자기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43.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이다.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진짜 ‘선옥’이 송정에 나타나자 형욱은 ()하고 있군.”

- ① 괄목상대(刮目相對) ② 목불식정(目不識丁)
- ③ 방약무인(傍若無人) ④ 수구초심(首丘初心)
- ⑤ 좌불안석(坐不安席)

[44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년 봄에 이웃에서 파초 한 그루를 사 왔다. 얻어온 것도 두어 뿌리 있었지만 모두 어미 뿌리에서 새로 찢어낸 것들로 앉아서나 들여다볼 만한 킨들이요 ‘요게 언제 자라서 키 큰 내가 들어선 만치 그늘이 지나!’ 생각할 때는 적이 한심하였다.

그래 지나다닐 때마다 눈을 빼앗기던 이웃집 큰 파초를 그애 사 오고야 만 것이다. 워낙 크기도 했지만 파초는 소 선지가 제일 좋은 거름이란 말을 듣고 선지는 물론이고 생선 씻은 물, 깻묵물 같은 것을 틈틈이 주었더니 작년 당년으로 성복동에선 제일 큰 파초가 되었고 올 봄에는 새끼를 다섯이나 떼어내었다. 그런 것이 올 여름에도 그냥 그 기운으로 장차게 자라 지금은 아마 제일 높은 가지는 열두 자도 훨씬 더 넘을 만치 지붕과 함께 솟아서 퍼런 공중에 드리웠다.

지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큰 파초는 처음 봤군!” 하고 우러러 보는 것이다. 나는 그 밑에 의자를 놓고 가끔 남국의 정조(情調)를 명상한다.

파초는 언제 보아도 좋은 화초다. 폭염 아래서도 그의 푸르고 싱그러운 그늘은, 눈을 씻어줄이 물보다 더 서늘한 것이며 비 오는 날 다른 화초들은 입을 다문 듯 우울할 때 파초만은 은은히 빗방울을 통기어 주렴(珠簾) 안에 누웠으되 듣는 이의 마음에까지 비를 뿌리고도 남는다. 가슴에 비가 뿌리되 옷은 젖지 않는 그 서늘함, 파초를 가꾸는 이 비를 기다림이 여기 있을 것이다.

오늘 앞집 사람이 일찍 찾아와 보자 하였다. 나가니 “거 저 파초 파십시오.”

한다.

“팔다니요?”

“저거 이제 팔아버려야 합니다. 저렇게 꽃이 나온 건 다 큰 표구요, 내년엔 영락없이 죽습니다. 그건 제가 많이 당해본 걸입쇼.”

한다.

“죽을 때 죽더라도 보는 날까진 봐야지 않소?”

“그까짓 인제 뒤 달 더 보자구 그냥 두세요? 지금 팔면 파초가 세가 나 저렇게 큰 것 오 원도 더 받습니다……. 누가 마침 큰 걸 하나 구한다쥬. 그까짓 슬쩍 팔아버리시쥬.”

생각하면 고마운 일이다. 이왕 죽을 것을 가지고 돈이라도 한 오 원 만들어 쓰라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마음이 열른 줄리지 않는다.

“그까짓 거 팔아 뭘 하우.”

“아 오 원쯤 받으셔서 미단이에 비 뿌리지 않게 쟁이나 해 다시 쥬.”

그는 내가 서재를 짓고 쟁을 해 달지 않는다고 자기 일처럼 성화하던 사람이다. 나는 쟁을 하면 파초에 비 맞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몇 번 설명하였으나 그는 중시 객적은 소리밖에 안 듣는 모양이었다. 그는 오늘 오후에도 다시 한 번 와서,

“거 지금 좋은 작자가 있는텨쇼…….”

하고 입맛을 다시었다. 정말 파초가 꽃을 피우면 열대지방과 달라 한 번 말랐다가는 다시 소생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마당에서, 아니 내 방 미단이 앞에서 나와 두 여름을 났고 이제 그 발육이 절정에 올라 꽃이 핀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가 한 번 꽃을 피웠으니 죽은들 어떠리! 하물며 한마당 수북하게 새순이 솟아오름에랴!

소를 길러 일을 시키고 늙으면 팔고 사간 사람이 잡으면 그 고기를 사다 먹고 하는 우리의 습관이라 이제 죽을 운명의 파초니 오 원이라도 받고 팔아준다는 사람이 그 혼자 드러나게 모진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무심코 바람에 너울거리는 파초를 보고 그 눈으로 그 사람의 눈을 볼 때 나는 내 눈이 뜨거웠다.

“어서 가슈. 그리구 올가을엔 옴이나 작년보다 더 깊숙하게 파 주슈.”

“참 딱하십니다.”

그는 입맛을 다시며 돌아갔다.

— 이태준, 「파초」 —

44.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 회상을 통해 현재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 ② 대화를 삽입하여 대상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단정적인 표현을 통해 부정적 현실의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대상을 대하는 인물의 태도를 대비하여 글쓴이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대상에 대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글쓴이의 객관적인 감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수필의 소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평범한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일상적인 소재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① 파초의 크기에 경탄하며 ‘지나는 사람’에게서 파초를 평범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려는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② 틈틈이 좋은 거름을 주는 등 파초를 기르는 경험이 제시된 것으로 보아, 파초는 ‘나’의 일상과 관련된 소재임을 알 수 있군.
- ③ 파초 앞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듣고 마음에 비를 뿌린다고 표현한 것은, ‘나’가 파초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보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군.
- ④ 파초를 팔라는 ‘앞집 사람’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나’가 파초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군.
- ⑤ 자신의 눈이 뜨거워졌다는 말을 통해 ‘나’가 하고 싶은 말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겠군.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